

---

# 가정 성교육

---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었나이다”

좋은 선택을 위한 가정 성교육 /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예방적 대안과 회복적 대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양주열 신부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한국틴스타 대표)

## 좋은 선택을 위하여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좋지 않은 길’입니다.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길’은 편하고 빠른 길이지만 ‘좋지 않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을 의미한다면 사람들은 쉽고 편한 ‘좋은’ 길을 택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길이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고 경치도 좋은 길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두 길이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라면 쉽고 편한 것과 어렵고 힘든 것 말고도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닿는 목적지입니다. 쉽고 편한 ‘좋은 길’이어도 나쁜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과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좋지 않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할 때는 선뜻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에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도덕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행복은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것을 실행하고 성취할 때 도달하고, 얻게 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은 목표를 위해 용기를 내어 그 길을 선택하여 도전하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자기 자신과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옳은 길’을 ‘좋은 길’로 선택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서 좋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험 삼아서 다른 이들이 같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예방적 대안과 회복적 대안으로써 ‘가정

성교육'입니다. 미혼모·미혼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인 미투 운동, 성희롱과 성폭력, 차별금지, 여성 혐오, 디지털 성착취,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올바른 성교육'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천명하면서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이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합당한 내용인지, 성교육의 목적이 통합적인 인간 인격 완성에 이르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교육의 필요를 설정하며 자기주장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모·미혼부를 돕기 위해서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성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혼모·미혼부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왜 이런 어려움에 연루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필요에 응답하며, 최종적으로는 미혼모·미혼부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자기완성에 이르도록 동반하는 인격적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이해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성교육을 위해서는 미혼모·미혼부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필요나 '무슨'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는 윤리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 되고, 외면당하거나 방치되어 잊혀집니다. 그러나 미혼모·미혼부가 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며, 또 많습니다. 혼전 임신을 통해 출산한 이들에 대해 일반적으로(특히 미혼모들에게) 윤리적인 비난이 가해집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거나 부주의하거나 피임을 하지 않아서 곤란한 문제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의해 신체적 변화와 회복의 시기를 거치게 되고, 자신을 추스르면서도 또한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양육해야 하는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편 미혼모·미혼부 모두 떠나간 상대방으로 인한 관계 단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떠나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과 그 이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혼모·미혼부는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필요와 사회생활의 복귀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혼모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게 되므로 이를 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혼모·미혼부가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떠나간 상대편과의 성관계를 통한 임신 이후,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한 결과인 출산입니다. 이 출산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혼인 없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혼인 없이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한편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한 출산으로 부모가 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행한 용기 있는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선택에 대한 격려와 지지와 연대와 함께 이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태어난 아기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옳은 ‘좋은 길’을 선택한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선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성교육, 산후 생식력 자각

미혼모·미혼부가 되는 불편한 이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진 성인 남녀가 사랑한다거나 개인적인 권리가거나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성인으로서 자신들이 갖게 된 생식력이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현실감 있는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상대편에게 갖고 있는 호감이나 필요에만 집중하며, 임신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제거할 목적으로 피임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대편에 대한 성적 몰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식력의 중요성을 왜곡하는 피임 도구 사용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임신을 피하는 편리함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미혼모·미혼부가 됩니다. 이는 피임 방법에 대한 부정확한 사용이나 임신을 방지하는 부정확한 피임 정보가 오용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남녀 자신들의 생식력과 임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 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란 비록 생식력을 가진 성인이지만 아직 혼인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남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임신과 출산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한 남녀는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을 했다고 해서 이 남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이 여성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출산을 통해 여성은 어머니가 되고, 남성은 아버지가 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성관계를 맺은 남녀를 출생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되는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갖는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변화시킵니다. 아직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으나 이들은 아직 부부도 아닌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에는 이들이 자신과 상대편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존재의 중요성과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서로 돌

보아 줄 수 있으며 인격적인 성장의 여정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후 생식력 자각’은 임신부와 출산한 여성에게 적용 가능한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출산한 여성의 회복을 도우며 자신의 생식력 자각과 자기 결정 능력을 갖는데 필요한 성과 사랑과 생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기 산후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의 사회적 신분과 아기 아버지와의 관계 파악</li> <li>- 교육 과정 개관 및 생리 주기 학습표 교육</li> </ul>
2기 산후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식 생리에 관한 기본 교육(여성과 남성)</li> <li>- 피임의 원리</li> <li>- 산후 점액이 시작하면 점액 관찰 기록표 사용</li> <li>- 개별 면담 일지 기록</li> <li>- 개인 신상 기록서와 참가 동의서 작성</li> </ul>
3기 산후 6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액 관찰 기록표 검토</li> <li>- 신생아 양육기와 이유 시기 등 특별 상황에 놓여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나는 무배란 양상 설명</li> <li>- 관찰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나누기</li> </ul>
4기 월 1회	<p>(그룹별 모임, 강의, 토의에서 반복하는 주제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주기의 정서적 양상, 다른 가족과의 관계(아기, 파트너 혹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li> <li>- 성적인 의사 결정(성적 몰입과 성의 절제)</li> <li>- 엄마되기와 유아의 발달 과제, 아기와 엄마의 영양</li> <li>-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체온 등을 이용한 생식력 자각의 다른 방법</li> <li>- 산모와 연관된 특별한 상황 개관(일반적인 위생학, 질 출혈, 질염,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성인성 질환 등)</li> </ul>

산후 생식력 자각 프로그램은 1년간 진행합니다. 진행 과정은 생식력 자각을 위한 점액 관찰 기록과 개별 면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산모가 부모와 함께 산다면 부모가 된 딸과 새로 태어난 손자·녀에 대한 그들의 부모의 감정을 평가하기 위한 부모와의 만남이 바람직합니다 (과정 중 첫 모임, 석달 췌, 여섯 달째와 마지막 모임시). 그리고 산모가 동거 중이면 상대방을 모든 개별적인 교육 과정에 함께 초대합니다.

산후 생식력 자각 프로그램은 미국 의료선교 수녀회(한나 클라우스 수녀)의 미혼모를 위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미혼으로 임신한 여성들을 돕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성들 자신에게 생식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제는 여성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혼전 임신을 하거나, 혼전 임신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져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에게 자신의 점액 양상을 관찰하면서 생식력을 자각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성에 대한 질문을 그룹 모임과 개별 면담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동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반을 통한 교육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점액 관찰을 통해 생식력 양상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나눔과 토론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생식력을 자각하고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성적 행위(Sex)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성(Sexuality)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존재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생식력 자각 교육 과정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회복적 방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방적 대안으로써 혼인을 준비하는 남녀 젊은이들과 사춘기를 맞이하는 남녀 청소년들을 돕는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사춘기에 들지 않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6~13세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 우리가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을까? 가정 성교육과 인격적 성교육

‘올바른 성교육’이란 말은 매우 폭넓은 이해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두 망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의를 통해 ‘올바른 성교육’인지 아닌지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성교육이 성의 신체적인 요소가 전부인 것으로 가르친다면 ‘올바른 성교육’일까요? 신체의 성적 발달, 성행위, 피임, 성병 등 ‘성은 곧 성교’가 전부인 것으로 가르친다면 ‘올바른 성교육’이 될까요? 만일 어떤 성교육이 신체는 중요하지 않고 성에 대한 자신의 정서나 인식에 의한 판단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성적 행동은 예외 없이 모두 개인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올바른 성교육’이 될까요? 만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성의 구분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면 성적 요소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성적 차이를 부정한다면 ‘올바른 성교육’이 될까요? 성적 차이를 이유로 성적 차별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특정 목적에 따라 가르친다면 ‘올바른 성교육’이 될까요? 성은 개인적인 행위이며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성적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가르친다면 ‘올바른 성교육’이 될까요? 성은 신체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성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며 보이지 않는 다른 의미나 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르친다면 ‘올바른 성교육’일까요? 모든 다양한 성교육의 내용이 성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겠지만 특정 목적만을 지향하는 단편적인 성교육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올바른 성교육’에는 자신의 몸이 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 자신임을 가르쳐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은 곧 몸을 통해 남성이거나 여성으로서 성적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성교육’은 우리 안에 성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가르쳐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삶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적인 욕구를 부끄러워 숨기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성적 행동을 어쩔 수 없는 본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며 행동하게 하고 자신의 성적 행동을 본능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키도록 가르칩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라면 성적 행동은 은밀한 것이 되거나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행동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적인 감정(욕구)는 타인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이끌어주는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에너지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이러한 성적 욕구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차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은 고유한 성적 존재로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성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서 만나게 됩니다. 성적 특성을 지닌 자기 자신과 만나는 상대도 성적 특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 사회적 관계는 성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 서로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며 좋은 일을 이루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교육’은 성적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들이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징의 성적 요소가 성교육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인간의 성(性)’ 안에 담겨 있다는 것과 그것을 알아차리고 실현하고 성장시키고, 나아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지식과 관계 능력도 점점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와 연관된 성적 특성도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교육’은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성적 성장 단계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인격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올바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해야 ‘인격적 성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교육은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3항에서는 교육 책임자로서 부모의 가르치는 책임에 대해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자녀를 교육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한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교육 임무는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이것이 없으면 거의 보완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격적 사회적 전인 교

육을 촉진하는 가정 환경,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으로 활력에 넘치는 그러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37항에서 ‘성교육은 부모의 기본 권리이며 의무’이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명확하고 섬세한 성교육을 시켜야’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교육에 관한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지침(1983. 11. 1) 「인간적 사랑에 관한 교육 지침」 9항에서는 ‘부모들이 자기들이 적절한 성교육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에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데도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가 부모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강조하는 이유에는 더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전달했다는 것은 성적 존재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증여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적 결합을 이루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적 존재인 인간이 혼인 안에서 부부사랑의 행위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선(善)의 목적인 인간 생명 전달의 책무를 완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된 이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성적 존재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였고, 그것을 통해 그들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녀들에게 성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존재이며, 또한 전달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가 성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이며 가장 적합한 교육자이고, 바로 가정이 ‘올바른 성교육’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됩니다.

## 가정 성교육의 출발점, 부부 사랑

부모가 전달하는 가정 성교육의 출발점은 바로 혼인과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된 이들의 ‘부부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부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부부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가정 안에서 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부가 이미 살고 있는 ‘부부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한데서 오는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부부로 살면서도 ‘부부 사랑’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때로 자녀들로부터 출생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나 직·간접적으로 성이나 성 행위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난처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성이나 부부 행위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한 자녀들에게 부부 행위의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사랑’이라는 이유를 말하기는 쉽지만 성적 끌림(욕구)으로 시작하여 환희와 감각으로만 인식된 부부 행위를 선뜻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성교를 포함한 부부 행위는 환희와 감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은 성적 존재로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배우자 앞에 존재하게 됩니다. 오직 상대 배우자만을 위해 온전히 인격적인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부부 서로가 자기 존재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상대방은 온전히 내어준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상대방 역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여 일치하는 것이 부부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기 증여와 온전한 수용의 행위는 부부가 서로 일치하여 하나임을 체험하고 서로로 인해 자신이 완성되는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부 행위를 통한 충만한 일치의 체험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부 행위는 부부 상호에 대한 신뢰의 행위이며, 부부가 이루는 가정생활에 희망과 미래를 담은 행위이며, 부부 서로 진정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랑은 부부 행위를 통하여 인격적인 친교를 이루고 새로운 생명의 개방성을 포함함으로써 부부의 신뢰와 희망과 사랑을 드러내 줍니다. 성에 관한 질문을 받은 부모가 부부 사랑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면 질문을 받은 부모의 태도로서 이미 성은 환희와 감각을 넘어서 참된 사랑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며 그 부부 행위의 결과가 바로 질문을 하고 있는 자녀임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묻는 질문은 자녀의 연령과 경험에 따라 대답해야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자녀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나 질문에 대한 자녀의 생각을 물어보면서 질문 의도와 필요로 하는 대답의 수준을 파악하면서 대답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 부부 행위 안에서 이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차단하는 선택이 필요해 진다면 이 부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기 쉽습니다. 우선 자녀의 터울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피임을 사용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생식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의 생식력이 지속적인데 비하여 여성의 생식력은 주기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부부 행위를 통해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성의 가임력과 주기적인 여성의 가임력이 일치하는 배란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성의 지속적인 가임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주기적인 가임력을 의미하는 배란이 없다면 임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비가임기에는 남성이 생식력이 있어도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피임이 아니라 온전한 부부 행위를 통해서도 자녀의 터울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터울 조절을 목적으로 피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서로의 신체적 조건을 존중하지 않고 성적 욕구만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부부 사랑은 손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피임의 편리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인간 존재로서 지니고 있는 생식력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또 상대방을 온전히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며, 생명의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신뢰와 희망과 사랑을 담은 부부 사랑과 가정에 대한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됩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에 대한 생식력에 대한 이해 없이 부부 행위를 하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한다면 그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는 성의 가치와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존중과 배려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 생활 안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비인격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성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모르는 남성의 행동으로 인해 여성이 피해를 입거나 악의는 없었더라도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피해를 남성도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우선적이고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정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에 배우자가 개입하여 들어 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남성인 남편은 여성인 아내를 알고 이해하며, 여성인 아내는 남편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알고 이해함으로써 동성이거나 이성인 자녀의 성교육을 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양육할 수 있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 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아들은 여성인 자매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딸은 남성인 형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여성과 남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는 자녀들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성적 특성을 포함하여 자존감을 가지며 연대하고 선을 이루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혼인을 통해 이룩한 가정 안에서 1)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행위이며, 2)배우자와 모든 것을 상호 공유하며, 3)전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충실하며, 4)생명을 향한 개방성을 지향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부 사랑을 통해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해야 합니다.

## **부부 사랑의 확장, 부모됨**

‘올바른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 사랑을 통해 참된 사랑과 생명의 존엄성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사랑을 통해 생명을 전달받은 인간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일치하고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며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닌 사랑의 양상은 성장하는 인간 존재와 연관되어 있기에 인격적인 성

장의 단계를 거칩니다. 부부가 함께 나누는 부부 사랑은 증여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고유한 자기 존재로서 상대에게 온전히 자기를 증여하고, 또 상대에게 온전히 수용됨으로서 일치 이루고 생명을 창조하는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적이며 상호 보완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체험하면서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인간적인 부부 사랑은 서로 주고받고 일치를 이루는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된 이들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조건 없이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고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존재하게 된 생명 자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사랑을 살아갑니다.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된 이들은 새로 태어난 자녀를 통해 결실을 맺는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창조적인 사랑을 체험합니다. 또한 부모는 출산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결실을 맺는 생명력 넘치는 인격적 성장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됨’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사랑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며, 자녀에 대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사랑을 언급할 때 기꺼이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을 손꼽습니다. 가정 성교육에서도 부부 사랑은 ‘부모됨’을 통해 책임 있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부모의 책임 있는 사랑의 실천은 자녀들에게도 일생을 살아가는 밑천이 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기위해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태도와 사랑의 실천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무엇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태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성적인 요소는 제외하고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성적 요소를 포함해서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인격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자기다운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기답지 못하다면 그에 대해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는 좋은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다운 결정을 한다면서 독불장군으로 자기 고집만 세운다면 그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인격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좋은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고 그가 맺은 관계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지향하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인격적’이어서 자기답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쁜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인격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선을 지향하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격적’ 존재로서 자기답고, 좋은 관계를 이루며, 선을 지향하는 사랑으로 성장하고 확장된 사랑이 바로 부부 사랑 안에서 성장한 ‘부모됨’을 통해 드러나는 ‘조

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기다움을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성장을 가르치는 교육이며, 성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서로 잘되도록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인격적 사랑을 가르치는 교육이며, 인격적인 존재로서 궁극적 선(善)인 생명에 대한 개방과 출산을 통해 새로운 생명 창조에 참여하여 책임 있는 인격적 사랑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사랑과 생명을 위한 성교육이 가정 안에서 부모된 이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올바른 성교육'입니다.

### 가정 성교육의 첫 번째 목표, 수동적인 사랑의 체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아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현재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 성교육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인간이 삶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삶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또한 가정 성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기실현의 여정을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고유한 인간 존재가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합당하지만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여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자기실현입니다. 인간이 고유한 자기다움을 실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 속에 살아가고, 좋은 일(善)을 성취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 바로 삶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성교육도 이 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격적인 자기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성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 체험을 갖는 일입니다. 존재에 대한 부정적 체험은 인간의 삶 안에서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장애를 만들어 냅니다.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부정적 체험 역시 인간의 삶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가정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성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아니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성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부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수정되는 순간부터 긍정적으로 온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성교육은 이미 부부가 나누는 부부 행위부터 성에 대한 긍정적 체험 안에서 이루어

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 존재로서 또 성적 존재로서 존중받는 긍정적 체험을 지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체험은 곧 ‘전적으로 사랑받는 체험’(수동적 사랑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가정 성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부부 사랑’이 이미 ‘부모됨’을 통해 조건없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확장되어 있다면 ‘수동적 사랑의 체험’은 매우 자연스러운 성교육의 목표입니다. 누군가가 살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또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겠습니까?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할 수 없다면 아마도 그것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일은 인격적 자기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느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인격적일 수도 없고 참된 행복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전적으로 사랑받는 체험’(수동적인 사랑의 체험)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받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성교육은 자녀가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성교육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조건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자녀는 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인격적인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에릭슨의 인격 발달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6~13세)는 가정 성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자기 자신과 성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다릅니다. 각 연령대의 수준에 맞게 성교육의 주제를 다룹니다.

단원	6~8세	9~11세	12~13세
1	- 이게 나야!	-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 우리는 사람
2	- 생애 주기	- 가족	-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3	-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 친구	- 특별한 신호 - 여성 - 특별한 신호 - 남성
4	- 가족	- 나의 이야기	- 가족
5	- 우리 집, 우리 동네	- 너, 나, 우리	- 친구
6	- 친구	- 사람	- 대중 매체
7	- 나는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	- 내가 되고 싶은 사람	- 청소년기
8			- 나는 나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9			- 인생의 모델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에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가족, 친구,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성적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부모 모임을 통해 교사와 부모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어린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소규모 그룹으로 주1회로 진행합니다. 어린이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대하는 교사의 태도입니다.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14~16세)는 아직 사춘기에 이르기 전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지닌 성에 대한 개념과 태도를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 청소년들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성적 느낌과 욕구를 구별하며, 성적 활동과 성행위의 결과인 임신과 출산을 이해하고, 건전한 이성 교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부모와 원활히 소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사춘기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어 성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합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반하여 진행하고, 생식 생리에 대한 교육은 해당 성별 교사가 진행합니다.

단원	여학생	남학생
1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적인 개념과 태도에 대한 자각	
2	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영향	
3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	
4	생리 주기	생식력 자각
5	감정 기록	
6	생식력의 여러 조짐, 남성 주기	
		성욕 발동과 발기의 여러 가지 원인
		몽정과 자위의 원인, 감정 기록
		여성의 생식력 주기
7	자신의 성적 느낌과 욕구 그리고 결정의 주체	
8	성적 활동과 성 행위의 결과	
9	동성과 이성 간의 우정의 의미와 가치	
10	생명의 신비	
11	참된 행복	
12	올바른 선택과 결정	

## 가정 성교육의 두 번째 목표, 생식력 자각과 자기 결정 능력

인격적인 자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가정 성교육의 두 번째 목표는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들이 성적 발달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식력 자각’과 ‘자기 결정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흔히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쁘거나 못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성적으로 그리고 성적인 면에서도 급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의 지원과 지지 아래에서 성장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가정 성교육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며 성인 어른으로 성장과정을 동반하며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 성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겪는 변화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같은 나이라면 남성 자녀보다는 여성 자녀가 1년 정도 먼저 사춘기를 시작합니다. 여성 자녀의 경우 급속한 신체적 성장에 따라 질에서 생리적 변화가 시작되고, 가슴이 발달하며 여성의 체형을 갖게 되고, 겨드랑이와 생식기 주변에 음모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초경을 하면서 본격적인 성적 발달이 시작합니다. 한편 남성 자녀의 경우에는 급속한 신체적 성장과 함께 가슴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커지며, 목소리가 낮아지고, 얼굴과 겨드랑이와 생식기 주변에 음모가 나고 음경과 고환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여드름이 납니다. 모든 것이 성 호르몬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부부 사랑을 통해 아내와 남편으로서 자신과 배우자 사이에 온전히 증여하고 수용한 부모라면 배우자를 통해 이성의 자녀에 성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태도를 가질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성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변화에 대해 변덕스럽고 짜증 가득하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로 여성 자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성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변화가 징그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로 남성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적 발달이 시작된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는 그들의 성적 변화에 대해 은밀한(secret)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적인(private) 존중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동성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들끼리, 우리 남성들끼리의 연대 의식을 형성하며 자녀들의 성장을 지지하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적, 성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 심리적 성숙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사춘기 이전의 자녀에게 부모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사춘기에 들어서면 부모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부모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 지적하며 도전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들이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심리적 독립뿐 아니라 생활과 인격적인 독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사회 심리적으로는 성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증가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집니다. 또한 행동적인 면에서도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과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갖게 된 성적 능력, 곧 생식력을 자각하고 자기다운 인격적 성장을 바탕으로 성인 초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본격적인 성적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갖춘 능력은 직업을 구하고 배우자를 고르는 능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원	여학생	남학생
1	- 자궁 경부 점액 관찰과 기록	- 몸: 남자, 여자
2	- 생식력 조짐 - 하느님, 당신의 모상	- 성욕 발동의 요인
3	- 생리 주기의 여러 양상 - 육체적인 존재	- 성 심리 발달, 자위, 동성애
4	- 배란과 최고 수정일 - 몸의 혼인적 의미	- 남성 호르몬 주기와 감정 - 하느님, 당신의 모상
5	- 신체와 감정 변화 - 성의 의미	- 여성에 대한 성의 태도와 생각 - 몸의 혼인적 의미
6	- 남성 호르몬 - 몸의 영성적 의미	- 여성과 남성의 신체와 감정 변화 - 몸의 영성적 의미
7	- 생명의 신비	
8	- 남녀의 성 심리 차이: 이성 교제, 대중 매체	
9	- 성 심리 발달: 성교의 그리스도교적 의미	
10	- 책임 있는 행동과 절제	
11	- 혼인의 가치	
12	- 성 행위의 본질 그리고 피임	

‘여성과 남성을 위한 틴스타’(17~19세)는 사춘기 이후 본격적인 성적 발달에 들어선 남녀 청소년들의 생식력 자각과 자기 결정 능력을 갖추도록 동반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틴스타(Teen STAR, Sexuality Teaching in the context of Adult Responsibility)는 ‘성인의 책임감의 맥락 안에서의 성성에 대한 교육’입니다. 고유한 인격을 지닌 인간이 자신의 성적 특성과 생식력을 자각하고, 자기 결정 능력을 갖추으로써 상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목적입니다. 틴스타 프로그램 안에서 참가자들은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며, 생식력과 감정 양상에 대한 자각을 위해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 운영 안에서 부모 모임을 실시하여 자녀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프로그램 안에서 나눈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식력 자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반하고, 혹시 참가자들이 성적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으면 이를 돕고, 교육에 따른 강요가 아니라 성의 가치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유로운 자기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동반합니다.

가정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자녀들이 성에 대해서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품게 된 성에 대해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서 젊은이들은 수 많은 성문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문제는 성을 은밀한 것으로 다루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은밀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그에 비해 가치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보는 성에 대한 가치적이고 행위적이며 편리함과 재미와 개인적인 권리의 차원으로만 제한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의 정보만 제공되며 욕심을 가진 누군가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행동을 강요받는 정보만을 제공받게 되어, 그 정보가 의도하는 대로 제시된 목적지로 이끄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 더욱이 성성(Sexuality)는 훨씬 크고 값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올바른 성교육’은 혼인 안에서 부부사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창조적 개방성 안에서 그 가치를 실현한 사람들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며, 모든 가정 안에서 그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바로 자녀에게 생명을 전달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성교육을 통해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위대하게 빛나는 부부 사랑과 부모됨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자녀들은 인간적인 삶 안에서 인격적인 자기완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미혼모·미혼부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혼인 전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경험은 어떤 이유에서도 쉽고 편안한 결정은 아닙니다

다. 더군다나 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앞에 두고서 생명을 선택한 일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출산하고, 또 그렇게 태어난 생명과 그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록 혼인 전에 임신을 한 일은 평생을 지고 갈 실수가 되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생명을 지켜낸 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성공한 일이 될 것이며 가장 정의롭고 위대하고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 낸 사람들이 얻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생명의 하느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지닌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록 늦었지만 교회도 여러분의 필요와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옳은 길을 용기를 내어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중대한 상황이지만,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좋은 목적을 향해 계속되는 삶을 위하여, 새로 태어난 생명이 인격적으로 자라나도록, 생명을 지켜낸 좋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인격적인 사랑의 여정을 살아가십시오. <환대와 동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었나이다!”